

CONDUCTOR
MYUNG-WHUN CHUNG

지휘 정명훈

KBS S.O. 815th

PIANO
YEKWON SUNWOO

피아노 선우예권

KBS교향악단
제815회 정기연주회

2025. 6. 12. Thu 20:00 롯데콘서트홀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 HS효성더클래스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KBS S.O. 815th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베토벤 L. v. Beethoven	피아노 협주곡 제5번 E♭ 장조, 작품 73 ‘황제’ Piano Concerto No.5 in E♭ Major, Op.73 ‘Emperor’ I. Allegro 빠르게 (18’) II. Adagio un poco mosso 느리지만 활기있게 (11’) III. Rondo: Allegro ma non troppo 론도: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10’)	⌚ 39’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브루크너 A. Bruckner	교향곡 제6번 A장조, WAB 106 Symphony No.6 in A Major, WAB 106 I. Maestoso 장엄하게 (16’) II. Adagio, Sehr feierlich 느리게, 매우 장중하게 (16’) III. Scherzo. Nicht schnell – Trio. Langsam 스케르초. 빠르지 않게 - 트리오. 느리게 (9’) IV. Finale.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활기차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13’)	⌚ 54’

⌚ 총 소요시간 : 약 115분 (인터미션 포함)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DUCTOR
MYUNG-WHUN CHUNG

지휘 정명훈

“그는 영적인 지휘자”

<르 몽드>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이 시대에 가장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의 포디움에 올랐다.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 수석객원지휘자,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현재 KBS교향악단 계관지휘자,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수석객원지휘자, 도쿄 필하모닉 명예예술감독 및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역대 최초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오페라 바스티유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도이치 그라모폰에서만 40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으며,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국제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음악가 상’,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3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평생 음악상’, 2017년 이탈리아의 국가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PIANO YEKWON SUNWOO

피아노 선우예권

“그의 연주는 명료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활활하다.” <뉴욕 타임즈>

“눈부신 기교와 섬세한 감정으로 관중을 압도했다.” <뉴워싱턴 포스트>

2017년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금메달리스트인 선우예권은 “변함없고 한결같이 우수한”(인터내셔널 피아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둥과 같은 종합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피아니스트”(시카고 트리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파워풀함과 비르투오스적인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음악의 진실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그는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고있다.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 덴마크 로열 오케스트라, 덴마크 라디오 오케스트라,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휴스턴 심포니,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샌다이 필하모닉,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 포트워스 심포니, 몬트리올 심포니,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 챔버 드 파리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뉴욕 카네기홀, 런던 위그모어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함부르크 엘브 필하모니, 파리 코르토홀, 도쿄 하마리큐 아사이홀, 아사펜부르크 시립극장 등 유명 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베르비에 페스티벌, 아스펜 페스티벌, 마르바오 페스티벌, 그슈타트 메뉴히ن 페스티벌, 팔레르모 페스티벌, 서밋 뮤직 페스티벌, 토론토 서머 뮤직 아카데미 앤 페스티벌, 체임버 뮤직 노스웨스트 등의 세계적인 음악축제에 초청 받아 연주했으며, 금호문화재단과 함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등 투어 연주를 가졌다.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과의 국내 투어를 비롯하여 플루티스트 에마누엘 파위,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첼, 벤자민 베일만, 세바스찬 보렌, 토비야스 펠트만, 첼리스트 안드레이 이오니처, 이상 앤더스, 게리 호프만, 피아니스트 랑랑, 앤-마리 맥더모트, 성악가 연광철, 벨체아 콰르텟, 예루살렘 콰르텟, 브렌타노 콰르텟 등과 협연하며 실내악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2019년 ‘나의 클라라’, 2021년 ‘모차르트’에 이어 2023년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으로 전국 11개 도시에서 리사이틀 투어를 가지며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 클래식 스타의 저력을 드러냈다.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외에도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년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 수상으로 음악계를 놀라게 했으며 2013년 샌다이 음악 콩쿠르 1위, 2012년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커티스 음악원(세이무어 립킨 사사)에서 라흐마니노프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 줄리어드 음악원(로버트 맥도널드 사사)에서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상을 수상했고 매네스 음대 전문연주자 과정(리처드 구드 사사) 졸업 후 현재 하노버 국립음대 연주자과정에서 베른트 괴츠케를 사사하고 있다.

2017년 반 클라이번 우승 2주만에 데카 골드에서 라벨의 ‘라 발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등을 담은 앨범 [클라이번 골드 2017]을 출시했고, 이 앨범은 빌보드 클래식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2020년 데카 레이블에서 첫 스튜디오 앨범 [모차르트]를 발매했으며 2023년 데카 레이블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을 발매했다.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로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대사,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베토벤 L. v. Beethoven	피아노 협주곡 제5번 E♭ 장조, 작품 73 ‘황제’ Piano Concerto No.5 in E♭ Major, Op.73 ‘Emperor’
작곡연도	1809년
초연	1811년 11월 28일, 독일 라이프치히
편성	독주 피아노,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 현 5부
연주 시간	약 39분

악상의 웅대함, 화려한 음향과 선이 뚜렷한 주제로 지금껏 나온 협주곡들을 통틀어 지존의 위치에 올라 마땅한 이 협주곡이 ‘황제’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베토벤이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폭격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작품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오스트리아 국민군의 공격은 오히려 나폴레옹 군대가 빈으로 진격해 오도록 만들었고, 1809년 5월부터 빈은 화염에 휩싸였다. 천지를 뒤집은 포격의 소음이 귀가 아픈 베토벤에게 치명적이었음에도, 이 시기 그의 작품에서 공포심이나 고통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오직 음악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호기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곡들이 연이어 탄생했다.

호방한 기질의 첫 번째 카덴차는 그 자체로 전곡의 성격을 규정짓는 멋진 것이지만, 이렇게 거창한 오프닝 후 균형을 맞춰 전개되는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간의 흐름이야말로 악성의 숨씨다. 1악장 후반부에 배치되어야 할 카덴차를 없앴 것도 신의 한 수다. 앞으로 옮겨진 카덴차의 위치보다, “연주자가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카덴차는 필요없다.”고 선언하고 협주곡을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짓고자 했던 베토벤의 자세에서 타협하지 않는 독불장군의 모습이 아닌 확신과 당당함이 묻어난다. 초연은 1811년 11월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졌으며, 1812년 2월 역사적인 빈의 초연에서는 제자였던 체르니가 피아노를 맡았다.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I. Allegro

피아노의 웅장한 아르페지오로 문을 여는 제1악장은 피아노의 카덴차에 이어 오케스트라의 힘찬 1주제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스타카토가 인상적인 2주제는 소나타 형식의 규칙을 어기고 e플랫 단조로 제시되며, 일견 애수를 띄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오랫동안 쉬었다 등장하는 피아노는 1주제와 2주제를 연달아 연주하며 화려함을 더해간다. 주제와 주제 사이를 연결하는 에피소드들도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 듣는 이를 즐겁게 한다. 전개부의 처음은 주로 1주제를 활용하며 오케스트라는 G장조로 변해 피아노에게 활약을 건넨다. 아르페지오와 옥타브로 이루어진 전개부의 기교적 요소들은 웅장함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자체로 베토벤의 정신을 대변한다. 재현부에서의 2주제는 피아노가 먼저 연주하며, 오케스트라와의 대화도 더욱 긴밀해져 흥미를 높인다.

II. Adagio un poco mosso

제2악장은 매우 서정적인 악상으로 시작한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주제는 차분하고 경건한 성격으로, 약음기를 낀 바이올린이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변주곡 형식을 띠고 있으며, 한마디로 피아노와 여러 관악기들의 은밀하면서도 달콤한 분위기의 음악적 대화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악상을 꾸미는 장식들도 최소화 되어 있으며 후반부의 진행은 알베르티 베이스의 모양으로 일관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천상의 것이다. 피아노가 다음 악장의 주제를 서서히 암시하며 시작을 알리는 3악장은 알레그로의 론도 악장이다. 본격적인 시작 전 바순이 b음에서 반음 낮춘 b플랫 음으로 진행하면서 화려한 피날레를 긴장감있게 예고하는데, 으뜸 조성과의 관계가 먼 B장조로 2악장을 설정했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III. Rondo: Allegro ma non troppo

이윽고 시작되는 제3악장은 탄력있는 도약과 역동적인 리듬의 1주제와 우아한 부주제가 절묘한 어울림을 보인다. 크게 일곱 부분으로 나뉘는 론도 형식 속 중간부에서는 세 차례나 조옮김을 하여 작곡가의 원숙하면서도 현란한 작곡기법을 뽐내고 있다. 피아노의 음계 패시지와 두근거리는 맥박을 상징하는 팀파니가 조금씩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인상적인 엔딩을 빚어내는 코다도 강렬하다.

브루크너 A. Bruckner	교향곡 제6번 A장조, WAB 106(노바크 판본) Symphony No.6 in A Major, WAB 106(Ed. Leopold Nowak)
작곡연도	1879년~1881년
초연	1883년 5월 24일, 독일 라이프치히
편성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현 5부
연주 시간	약 54분

작품의 중요도나 인기를 설명하려 할 때 같은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사례는 무척 흔하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비교일 뿐, 특정한 작품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창작의도 등은 결코 훼손되면 안 될 것이다. 모두 11개인 브루크너의 교향곡 중 6번 A장조는 창작의 시기나 작곡가의 스타일 등의 기준으로 보아 다소 과도기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형식과 내용의 뛰어난 균형 감각과 종교적인 분위기로 높은 평가를 받는 5번, 본격적인 후기 교향곡의 찬란한 시작인 7번 사이에 들어있는 6번은 상대적으로 짧은 연주 시간 때문에 과소 평가되는 경향도 보인다. 하지만 응축된 연주 시간 속 이 작품이 건네는 음악적 메시지는 그 어느 곡보다도 화려함과 독창성을 겸비하고 있다. 스스로 작품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였던 브루크너는 이 교향곡을 가리켜 ‘대담한 작품’이라 평가했다. 복잡해 보이지만 유연한 리듬, 예민하면서도 급격하게 바뀌는 화성들과 전곡을 감도는 낙천적 분위기 등에서 이 곡은 분명한 차별을 선언한다.

1881년 성 플로리안의 수도원에서 완성된 교향곡은 1883년 2월 지휘자 빌헬름 안과 빈 필에 의해 초연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2악장과 3악장만 연주되었다. 부분 초연인데다 지휘자의 의지대로 수정이 많이 가해졌으니, 실질적인 초연은 작곡가 사후인 1899년 2월 구스타프 말러의 지휘가 전곡 연주로는 최초다. 하지만 이 때의 연주 역시 말러의 수정이 많이 가해졌고, 곧이어 브루크너의 제자인 시릴 히나이스가 개정한 악보가 출판되었으나 역시 자의적인 편집이 있는 악보였다.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 것은 브루크너의 다른 작품들과 대동소이하나 판본 중 강한 권위를 지닌 것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정되지 않은 1881년 원본을 바탕으로 한 하스와 노바크 판이 많이 사용된다. 두 버전이 크게 차이가 없는 관계로 이 교향곡은 버전에 따른 변화와 해석 등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I. Maestoso

369마디로 구성된 제1악장은 마에스토소의 지시어로, 깔끔한 구성의 소나타 형식이다. 1악장은 시작부터 이 작곡가의 교향곡에 익숙한 애호가들을 긴장시키는데, 이른바 ‘브루크너 트레몰로’로 불리는 조용한 트레몰로 대신 현악기들의 셋잇단음표 반주가 첫 주제를 장식해 주기 때문이다. A장조이지만 프리지아 선법으로 신비로움을 더하는 주제가 힘차게 제시된 후,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승하는 주제의 변형이 첼로와 더블베이스에서 등장한다. 두 번째 주제는 마단조로 제1바이올린이 연주하며 바그너 풍의 반음계적인 요소와 도약이 이루어지는 보조 주제, 경과구 등이 아름답게 수놓아진다. 세 번째 주제는 C장조로 다시 힘찬 느낌으로 곡의 분위기를 바꾼다. 곧이어 평화를 찾은 오케스트라는 딸림화음을 보이며 발전부로 넘어간다. 크지 않은 규모의 발전부이지만 브루크너는 여기서 이전까지의 교향곡들과 차별되는 현란한 조옮김을 보인다. 특히 내림 라장조-내림 가단조-마장조에서 으뜸화음으로 이어지는 재현부로의 진행이 극적이다. 재현부는 형식에 충실하며 두 번째 주제는 올림 바단조로 재현된다. 장대한 코다는 61마디에 이른다.

II. Adagio, Sehr feierlich

‘매우 장중하게’라는 지시어의 제2악장은 그의 느린 악장으로는 드물게 소나타 형식을 지니고 있는 177마디의 구성이다. 슬픈 느낌으로 상승하는 첫 주제는 이내 오보에가 장식하는 대선율과 함께 어우러지며, 두 번째 주제는 현악기군에 의해 매우 풍부한 표정으로 등장하며 마장조의 조성이다. 세 번째 주제는 장송곡 풍의 C단조로 제1바이올린에 의해 주제가 제시될 때 하강하며 움직였던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피치카토 음형이 그대로 발전부로 이어진다. 재현부의 첫 주제는 바이올린이 여섯잇단음표로 멜로디를 꾸미며, 두 번째 주제는 2악장의 으뜸조성인 바장조로 나타난다. 37마디의 코다는 설렘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다.

III. Scherzo. Nicht schnell – Trio. Langsam

‘빠르지 않게’의 지시어인 제3악장 스케르초는 다른 교향곡의 스케르초보다 안정감있고 차분한 느낌이며, 4분의 3박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8분의 9박자처럼 들린다. A 단조에 에올리아 모드를 사용한 도입에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셋잇단음표와 이에 탄력을 더해주는 32분음표들은 춤곡에 생기를 은유적으로 설명한다. 현악기들의 부드러운 셋잇단음표 음형은 우아함을 상징하며, 브루크너 특유의 하행하는 셋잇단음표들은 처음에는 목관악기가, 이어서 현악기들이 이어받는다. 느리게 연주하는 트리오는 4분의 2박자로,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의 3악장 트리오와 비교될 만한 힘찬 호른 트리오의 팡파레가 인상적이다.

IV. Finale.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활기차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의 지시어인 제4악장은 비교적 간결한 주제와 군더더기 없는 구성이다. 프리지아 음계로 바이올린에서 제시하는 첫 주제는 나긋나긋한 느낌의 하행하는 주제인데, 이내 호른과 트럼펫 파트가 강렬한 팡파레 음형을 터뜨리고 이에 화답하는 현악기군이 하행하는 8분음표 음형들을 늘어놓으며 음향의 클라이맥스를 한 차례 만든다. 두 번째 주제는 이와 대조적으로 상큼한 느낌의 멜로디가 제1바이올린으로 제시된 후 이내 비올라가 대 선율을 받고 목관악기군이 다이내믹의 섬세한 대조를 뽐내며 진행해 간다. 세 번째 주제는 강하게 선언하듯 나타내는 금관악기들의 포효와 오보에, 클라리넷의 경쾌한 부점리듬의 모티브가 대조를 이루며 등장한다. 현악기군이 이 부점리듬을 아기자기하게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돌입하는 발전부는 모두 네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매우 느린 템포로 표현력이 풍부하게 진행되던 악상은 세 번째 파트에서 나타나는 거친 금관악기들의 음향을 통해 점점 동적으로 변한다. 재현부는 곧바로 오케스트라 투티로 힘찬 시작을 알리며, A장조로 등장하는 두 번째 주제는 역시 낭랑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세 번째 주제의 부점리듬은 코다로 향하는 동적인 에너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45마디에 걸친 코다는 각 주제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장대한 절정을 이루어간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 음악 칼럼니스트)

Interview

선우예권에게 베토벤을 물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정명훈 지휘자와 함께 하는 무대. 그리고 베토벤이라는 이름. 이 모든 순간 속에 선우예권은 무엇을 느꼈을까. 공연을 앞두고,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건넸다.
(KBS교향악단 공연사업팀)

Q “황제”라는 별명이 붙은 이 곡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나?

A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는 초등학교때 음반을 통해서 처음 들었던것 같습니다. 첫 오프닝 코드인 E-flat major 코드가 웅장하고 당당하게 울려퍼지고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오프닝이 시작되는데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2012년 12월 4일, 뉴욕필이 공연하는 장소인 데이빗 게펜홀(구 에이버리 피셔홀)에서 이작 펄만의 지휘로 줄리어드 오케스트라와 처음으로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줄리어드에는 매년 협주곡 경연이 있는데 오디션을 통해서 공연에서 연주할 협연자를 뽑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좋은 공연장에서 하는 연주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서 잘 준비했는데, 제가 뽑혀서 연주했던 기억은 아직도 소중하게 남아있습니다.

Q 올해 정명훈 지휘자와의 무대가 유난히 많다. 연주자로서 Maestro 정명훈과 함께할 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언제인가?

A 정명훈 선생님과과의 공연은 더 가슴 깊이 오래가고 꿈을 꾸는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함께 연주하는 순간에 잠시 선생님의 지휘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그 음악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Q 선우예권에게 베토벤이란?

A 모든 음악가들이 그렇듯, 저에게도 베토벤은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영감의 원천이자, 끝없이 존경하는 존재입니다.

연주회

CONDUCTOR
MARKUS STENZ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PIANO
DMITRY SHISHKIN

피아노 드미트리 시쉬킨

2025
7.18. Fri
20:00 롯데콘서트홀

라벨 / 볼레로
M. Ravel / Boléro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장조, 작품 26
S. Prokofiev / Piano Concerto No.3 in C Major, Op. 26

쇤베르크 /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작품 5
A. Schoenberg / Pelléas und Mélisande, Op. 5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쿠크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예은 신지현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이유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현

트롬본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Akihiro Miura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플루트

Adriana Ferreira ^{수석}

클라리넷

Ron Selka ^{수석}

호른

Mischa Greull ^{수석}

트롬본

Alexandre Faure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전의범 황세빈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일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Cantata	고중재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Prelude	곽득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종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운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앵커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재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섀리 포스터피딕
Life ON Seal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02-6099-7400

ⓕ 02-6099-7416

Ⓚ www.kbssymphony.org

Ⓛ facebook.com/kbssymphony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kbssymphonyorchestra](https://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